

건강한 인간의 욕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고 명 규*

〈 목 차 〉

- | | |
|-----------------|-------------------------|
| I. 서 론 | VI. 건강한 인간의 욕구 특성 |
| II. 욕구이론 | VII. 결 어 : 성장욕구의 교육적 함의 |
| III. 욕구계층과 그 충족 | 참고 문헌 |
| IV. 욕구계층과 가치계층 | Abstract |
| V. 결핍욕구와 성장욕구 | |

I. 서 론

인간은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계속하기 위해서 다량의 물질이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마치 비행기가 가솔린을 공급받고 하늘을 날 듯이, 인간도 외부에서 에너지의 원천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연소(燃燒)함으로써 내장활동이나 사회적 활동 및 창조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 만일 인간이 활동의 원천을 외부에서 입수할 수 없다면, 그는 생명활동을 계속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을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외계에서 '구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단지 필요물을 외계에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성격 내에 축적한다는 것만으로서서는 충분치 않다. 이 축적된 에너지는 다시 외계에 방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육체적으로는 운동을 통해서라든가, 정신적으로는 작업(일)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함과 동시에 자신이 충분히 충족된 애정이나 지식을 타인에게 베풀어 그들의 자기실현을 돕지 않으면 안된다. 어린이의 행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은 원래 활동적인 존재로서, 잠시도 쉴 줄 모르는 활동성과 끊임없이 향상하고 발전하려는 성장을 위한 의욕 및 자기의 심신기능의 완전한 발휘에 의한 기능쾌락(funktionlust)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

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것은 어느 것이나 의무감이나 동조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라 전혀 인간의 본질적 경향이며, 활동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바람이며, '주는 욕구'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욕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유기체의 결핍상태를 외부에 의해서 보충하기 위해 외적인 대상을 받아들이려는 욕구이고, 또 하나는 이미 충분히 충족된 유기체가 축적된 에너지를 외부에 방출함으로써 자기를 표현하려는 욕구이다. 전자를 '구하는 욕구', 후자를 '주는 욕구'라고 하며, Maslow의 표현을 빌리자면 결핍욕구와 성장욕구로 대신된다.

그런데 인간의 이러한 다양한 욕구들은 계층적 구조를 이룬다는 Maslow의 욕구계층론에 의하면, 창조성·애정·자기실현이라는 고차적인 성장욕구의 발현은 하위단계의 저차적인 욕구충족에 의한 계층상승임을 의미한다. 즉, 그는 욕구의 충족이 건강을 뒷받침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시켜 성격발달을 정상적으로 이룩하게 하는 욕구를 결핍욕구(구하는 욕구)라고 하면서, 개인이 자기 이외의 세계에 관심, 즉 보다 생산적인 일·건전한 취미·타인을 위한 일이나 다른 가치있는 일에 몰입하거나 주의를 갖게 되는 자유는 이러한 저차원의 욕구충족의 성장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결핍욕구와 성장욕구간에는 이러한 계층적 관계와 기능적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이 두 가지 욕구간에는 욕구만족의 상태에 있어서나 그 추구하는 가치대상에 있어서나 서로 다른 질적인 성질을 갖고 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결핍욕구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특성적 차이를 가진 인간의 성장욕구는, 바로 자기실현인, 즉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건강한 인간의 중심적인 욕구임을 지목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건강한 인간이 가진 성장욕구에 대한 구조적인 특성이 무엇인가를 탐색함과 동시에, 이 연구된 성장욕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아동·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의미와 시사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Ⅱ. 욕구이론

인간은 욕구를 지닌 존재이다. 열차가 전력을 공급받고 달리고 비행기가 가솔린을 배급받고 날아가는 것처럼, 인간 유기체도 외부에서 자원을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생존을 하며 또 발달을 이룩한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외계에서 물질적·정신적 양식(糧食)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충실히 하려고 하는 매우 강력한 경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충실한 자기는 외계에 작용하여 자기의 에너지나 자원을 방출하여 밖에서 이를 결실하게 하여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강한 경향도 있다. 이러한 경향을 행동추진의 측면에서는 '충동(impulsive)'이라고 부르며, 유기체의 의식상태의 측

면에서는 ‘욕구(need)’라고 하여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動因이 된다(上田吉一, 1994).

그래서 오래 전부터 욕구를 인간의 자기순응적(autoplatic) 적응과 환경적응적(alloplastic) 적응을 이끌어가는 근원이 되는 심적 에너지로 가정했다. 여기에서 자기순응적 적응이란 순응(adaptation)·적합(conformity, fitting in)으로서 환경에 동조하여 사회적 가치나 규범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환경 속에서 개체를 존속시켜 가는 것을 가리키며, 환경적응적 적응이란 환경에 종속한 모양으로 개체를 조절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달리 환경의 조건을 개체의 기능에 맞도록 변화시키거나 외계의 요청을 극복하여 자기의 요구에 동화(assimilation)시킴으로써 그 개조된 환경과 조화된 관계를 성립시켜 가는 능동적인 과정을 말한다(박아청, 1999).

물론, 이 심적 에너지 자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지만, 욕구가 하나의 인자로 구성되고 있다는 욕구의 單因說과 여러 인자로 구성된다는 욕구의 多因說이 비교적 우세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다인적 이론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단인적 이론을 주장하는 Janet·Freud·Adler·Horney 및 Rogers 등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1. 단인적 이론

이 이론은 욕구가 하나의 인자로 구성되고 있다는 이론이다. 먼저, 프랑스 심리학자이며 정신의학자인 J. Janet는 인간이 모든 심적 제기능을 통일해서 보다 고차적인 행동을 가능케 하는 기능으로서 ‘精神總合의 能力’을 가정했다(星野 命 外 編, 1984).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인간의 정상적 행동과 병적 이상행동을 설명했다. 즉, 그에 따르면 히스테리나 정신쇠약증 및 정신병 증상은 모두 총합능력의 약화나 저하로 보는 반면에,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이 총합능력이 유지·강화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연하면, 인간의 행동경향은 저차원적이고 간단한 행동에서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행동에까지 계층적 질서를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합능력은 현실에 대한 긴장적 태도 즉, 주체 측의 ‘심리적 긴장’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심리적 긴장을 보지하기 위하여 ‘심리적 힘(力)’이라는 에너지 개념(저자 주 : 욕구)을 사용했다. 이 힘은, 심리적 긴장을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잠재적 심리적 힘)일 뿐만 아니라, 보다 고차적인 심리적 활동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顯現的 심리적 힘)라고도 생각했다.

Janet와 더불어 Sigmund Freud(1856~1939)의 생각은, 특히 이론체계의 방대성과 독자성에서도 폭넓게 지지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Freud는 개체를 유지하고 종족을 보존하는 본능을 지지하는 에너지로서 libido라고 부르는 개념을 받아들였다. 이 libido는 중심이 되는 것이 性欲(Eros=life instinct)이며, 또한 죽음의 본능(Thanatos=death instinct)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김정희 외, 1998). 그는 성욕을 매우 넓게 생각하여 인간의 애정은 물론 예술·문학 등의 창조적 활동도 역시 이 욕구가 사회적으로 인정된 방향에서 발산된 형태라고 하여 이것을 승화(sublimation)라고 설명한다. 또한 죽음의 본능은 인간과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고뇌가 많은 현세에서 벗어나 永眠의 狀態로, 즉 어떤 '삶'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고 싶다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여 이런 경향은 모든 공격적 행동이나 파괴적 충동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이 본능도 또한 승화하면 sports나 정치활동과 같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의 욕구론에서는 욕구충동은 승화에 의해서 문화나 예술이 되어 높은 가치를 갖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충동을 억압한 결과이며, 욕구충동 자체는 원래 가치있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인간에 내재하는 이와 같은 충동은 언제나 사회적 규범과 대립갈등을 반복하여 신경증과 같은 여러 가지 병리성을 지닌 성격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Freud의 欲求論이다.

Adler(1870~1937)의 욕구론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열등감과 보상(inferiority feeling and compensation)'에 관한 견해이다. 그는 처음에 신체기관의 열등성과 이에 대한 과잉보상의 문제에 흥미를 갖고, 신체기관에 대한 열등의식이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경향을 강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얼마안가서 그것은 신체적 기관의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주관적인 열등의식에 대해서도 이것을 극복해서 보다 완전한 존재로 향하게 하는 동기로서도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즉, 인간은 열등감을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우월성의 추구(striving for superiority)'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 Adler에 의하면 이와 같은 열등감은 사회적 관심(social interest) 혹은 社會感性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약한 동물은 언제나 무리(群)를 만들어서 행동한다. 이는 집단이라는 공동생활의 편의와 보호에 의해서 자기의 약함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등감을 가진 주관적으로는 약한 동물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집단을 만들고 사회를 구성하여 공동사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감정이 발전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요컨대, Adler는 인간의 행동을 동기짓는 가장 커다란 요인을 Freud처럼 성충동이 아니라, 열등감의 극복에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Karen Horney(1885~1952)의 욕구에 대한 견해를 보기로 한다. Freud의 욕구충동에 관

한 인식이 너무나 편협하고 성충동중심의 생물학적 주의에 떨어진 것에 대한 비판이 정신분석학에 대한 수정(修正)의 움직임이 낳게 되었는데, 그 중심인물이 바로 그녀이다.

Horney는 인간행동의 동인으로서 '기본적 불안(basic anxiety)'을 들고, 이 불안을 해소하려고 해서 행동이 동기짓게 된다고 주장한다. 불안은 서로 맞지 않는 신경증적 경향이 무의식 하에서 강박적으로 충돌할 때에 생기는, 즉 성격 내의 갈등의 산물이다. 구체적으로는 불안을 일으키는 최대의 원인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적의의 발생과 그 억압과의 갈등으로 인정되는 수가 많다고 한다. 가족을 비롯해서 밀접한 상호의존적인 인간관계에 놓여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의존·공포·애정·죄의식과 같은 것 때문에 적의의 노골적인 표현이 억압되기 쉽다. 그렇지만 만일 이런 적의가 억압되면 오히려 갈등을 높여서 불안을 북돋운다. 이 막연한 불안이 주위에 대한 신경증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Horney는 말한다.

Horney는 기본적 불안이 가져오는 신경증적 반응으로서는 다음 세 가지 행동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윤태림, 1970).

첫째, 애정과 인정이 몹시 그리운 '순종형(compliant type)'이 취하는 행동은, 타인의 보호와 애정에 의해서 마음 속의 불안을 경감시키려고 한다.

둘째, 모든 사람은 적의를 가진 것으로 보는 '공격형(aggressive type)'의 행동은, 적의가 애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불안을 해소하는 데 권력을 행사해서 타인을 맹종하게 하려고 한다.

셋째, 항상 자기와 타인과의 사이에 감정적인 거리를 두려고 애쓰는 '초연형(detached type)'의 행동은, 대인관계의 긴장을 피하는 수단으로서 고독을 구한다.

Carl Ransom Rogers(1902~1987)도 역시 성격에 단일한 동기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성격의 전체적인 성장발달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실현경향성(actualizing tendency)'이다. 이 실현경향성은 유기체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능력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유기체의 고유한 경향성이다(星野 命 外 編, 1984). 이것은 유기체의 기관이나 기능의 분화, 성장의 증대, 도구사용에 의한 효과증대, 생식에 의한 증대와 발전을 포함한다. 신체적인 질환이 성격 내에 존재하는 자연치유력(自然治癒力)에 의해서 병이 나아지는 것처럼, 정신적인 면에 대해서도 사람은 언제나 보다 나은 성격, 보다 나은 완성된 성격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적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의 욕구충동에 대한 견해이다.

Rogers에게 있어서는 상담에서의 내담자의 문제도 내담자가 자기의 유기체에 대한 신뢰감을 잃고, 욕구충동을 왜곡하여 인지한다든가 억압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상담의 결과로서 모든 경험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경험에 개방된 상태가 되면, 현실을 모두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기의 결점이나 장점을 자각하게 되면 성격에 이런 실현경향성이 존재하는 한, 결점을 시정하

고 장점을 더욱 신장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자연히 작용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2. 다인적 이론

다인적 이론이란 욕구의 단일인자설이 아니라 다인자 구성설로서,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5가지로 분류하는 학자와 4가지로 분류하는 학자가 있다. 전자에는 Maslow, Fromm, Glasser 등이 있고, 후자에는 Carroll 등이 있다.

먼저 Erich Fromm(1900~1980)에 의한 5가지 기본 욕구는 ①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the need for relatedness), ② 초월하고자 하는 욕구(the need for transcendence), ③ 정착하고자 하는 욕구(the need for rootedness), ④ 정체감의 욕구(the need for identity), ⑤ 방위성의 체제에 대한 욕구(the need for a frame of orientation)이다(上田吉一 역,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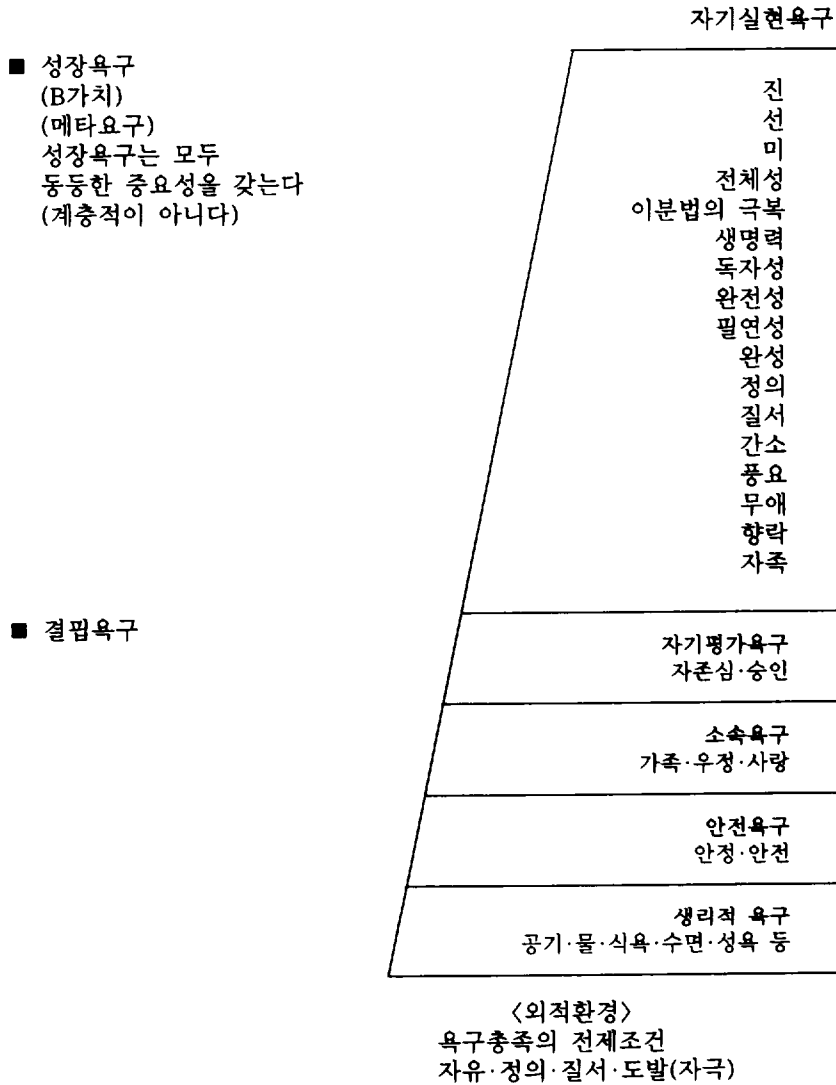
다음, William Glasser(1925~)가 중요하다고 가정하는 5가지 기본적인 욕구는 ① 생존(survival)의 욕구, ② 소속감 혹은 사랑(belonging or love)의 욕구, ③ 힘 혹은 성취(power or achievement)의 욕구, ④ 흥미(fun)의 욕구, 그리고 ⑤ 자유(freedom)의 욕구이다(노안영, 1998).

Herbert A. Carroll은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4가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욕망의 발동을 통해서 이를 이해하여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4가지 기본욕구란 ① 정서적 안정의 욕구(the need for emotional security), ② 지배 또는 성취에 대한 욕구(the need for achievement), ③ 인정 혹은 지위에 대한 욕구(the need for status), ④ 신체적 만족에 대한 욕구(the need for physical security)를 말한다(Carroll, 196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은 물론 건강한 인간이 갖는 욕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Freud파 등에서 보는 지나친 단순성이나 특수한 욕구설이 주는 복잡성에 기울어지는 태도를 탈피하여, 특히 Abraham H. Maslow(1908~1970)의 욕구다인설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Maslow는 욕구를 입체적인 계층구조로 파악하고 있다(Maslow, 1954). 즉 전체적·역동적 관점에서 모든 욕구의 계층적 질서를 이해하는 '욕구의 위계(hierarchy of needs)'를 중시한다. 이 욕구위계를 제시하면 <그림 II-1>과 같다.¹⁾

1) 특히 Maslow는 욕구의 계층배열에서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자기평가욕구까지를 '결핍욕구(deficiency needs)'라 하였고, 이 욕구가 충족된 후에 발현하는 자기실현과 자기초월의 욕구를 '성장욕구(growth needs)' 또는 통상적인 일반욕구를 넘어섰다는 뜻에서 '메타욕구(meta needs)'라고 하였으며,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는 '메타병리(meta pathology)', 즉 인생에 있어서의 가치·의미·성취감의 결여를 가져온다고 하였다(정인석, 1998).



〈그림 II-1〉 Maslow의 욕구의 계층(출처: 정인석, 1998)

〈그림 II-1〉에서 보는 것처럼 첫째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식욕·성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이며, 이는 동물과도 공통하는 가장 강한 욕구이다.

둘째로는 위협이나 불안을 피하고 안정을 구하는 안전욕구(safety needs)가 강한 욕구로 들 수 있다.

셋째로는 동료들에게서 따돌림을 받고 싶지 않다든가 애정을 얻고 싶다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

(belongingness and love needs)를 둘 수 있다. 특히 아동에게 있어서는 애정은 정신적인 양식으로 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성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넷째 단계의 욕구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되기를 바라는 존중의 욕구(esteem needs)로서,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명예·성취·지위·자존심과 같은 측면의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측면의 욕구이다.

다섯째 단계의 가장 높은 욕구가 자기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로서, 이 욕구에 있어서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든가 원조한다든가 혹은 사물을 생산한다든가 창조한다든가 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자기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진·선·미라는 가치를 창조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5가지 욕구는 계층구조로 되고 있어, 성격은 가장 기초에 있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욕구가 지배적이 되어 안전을 구하는 행동이 동기지워진다. 안전욕구가 충족되면 사람은 소속이나 애정의 욕구를 가장 강하게 갖게 된다. 다시 이것이 충족되면 존중욕구중심의 성격이 되고, 이것도 만족되면 사람은 자기실현의 욕구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욕구계층을 차차 오르면서 고차적인 욕구가 지배되기 위해서는 각 단계의 욕구가 충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욕구계층의 상승이 자기실현이라고 생각하면, 그 성취를 위해서는 욕구충족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1>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욕구위계설(need-hierarchy theory)은 또한 결핍욕구(구하는 욕구)와 성장욕구(주는 욕구)라는 형태로 간결히 정리할 수 있다(Maslow, 1962 ; 정인석, 1998). 여기에서 결핍욕구란 식욕 등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외계의 자원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충실을 피하려고 하는 욕구로서, 만일 이것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면 기아·비타민 결핍증·애정 결핍증이라는 병에 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죽음을 초래한다.

이에 반하여 성장욕구란 이미 결핍욕구를 충분히 충족된 유기체가 그 충족된 자원이나 에너지를 외계에 방출하여 타인을 사랑한다든가 원조한다든가 혹은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생산한다든가 창조하려고 하는 욕구이다. 이 욕구는 일반욕구에 대한 생각과는 전혀 달라서, 이미 안에 있는 자원을 밖으로 내어서 진·선·미라는 가치있는 것을 결실하려고 하는 욕구이다. 그것은 새롭게 외계에서 없음(無)에서 있음(有)을 산출하는 것이며, 완성된 작품이나 성과는 바로 피와 땀의 결정(結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Maslow가 말하는 이 성장욕구야말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지닌 가치에 대한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上田吉一, 1994).

그러나 Maslow(1962)는 자기실현에 관한 후기연구에서, 종래의 욕구계층모델에서 한계를 발견하고 자기실현의 욕구도 인간의 최상의 욕구가 아니며, 인간은 자기실현에서도 만족할 수가 없고 이를 뛰어넘는 자기초월을 구하려는 자기초월욕구(self-transpersonal needs)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가 인간본성에 대한 최첨단의 탐구를 통해서 자기실현을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종래 심리학의 전통적 관심과 내용에 인간경험의 정신적·영적 측면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성을 첨가했으며, 이를 계기로 그는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의 제창자가 되었다(정인석, 1998).

Ⅲ. 욕구계층과 그 충족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는 많은 심리학자가 논하지만, 이런 욕구들이 충족된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진술되고 있지 않다. 이미 고찰한 것처럼 욕구계층을 차차 오르면서 고차적인 욕구가 지배적이 되기 위해서는 각 단계의 욕구가 충족될 것이 필요하다. 이런 욕구계층의 상승이 자기실현이라면, 그 성취를 위해서도 욕구충족은 필요 불가결하다. 따라서 자기실현을 논함에 있어서는 욕구충족의 심리는 파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각 욕구단계에서 욕구충족의 심리를 들면 다음과 같다(上田吉一, 1994).

1. 생리적 욕구의 충족

인간의 생리적 욕구 중에서 식욕과 성욕의 충족에 대해서만 다룬다. 먼저 식욕의 욕구충족을 보면, 식욕충족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은 아마 만복감(滿腹感)일 것이다. 만복감은 단지 신체적으로 힘(力)의 충실감, 활동의욕, 에너지 방출을 위한 욕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능동적 태도나 성취의욕, 그리고 과제에 대한 도전의욕을 높힐 수 있다.

‘衣食足而知禮節’, ‘금강산도 식후경’, ‘수염이 닳자라도 먹어야 영감’이라는 속담이 시사하듯이, 식욕이 충족되지 않는 한 어떤 무엇을 할 마음도 의욕도 일어날 수는 없다.

다음, 성욕충족에 있어서는 남녀양성에서 신체적 쾌감, 성적 흥분, 황홀감, orgasm, 남성의 사정과 자위에 따른 신체적·생리학적 만족감, 나아가서는 애정의 충족, 일체감과 같은 정신적 만족감이 더해진다. 성욕충족은 정서적 안정감, 억압으로부터 해방, 유모어 감각, 놀이와 오락에까지 미친다. 즉, 모든 경험에 개방되어 신경증적 갈등을 볼 수 없는 성격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강하다.

2. 안전욕구의 충족

불안과 공포의 해소, 自信, 신뢰감, 안정감의 획득, 자발성,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 위험에 대한 도

전, 모험심, 용기, 대담, 결단력 발휘, 자주성, 주체성, 개성발휘 등 어떤 주저하는 일없이 자유롭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데에서 안전욕구가 충족된 성격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3. 애정욕구의 충족

사랑하고 사랑받는 능력의 획득, 따뜻한 인간관계, 동정심, 공감할 수 있는 풍부한 심정, 자기수용과 타인수용, 이타주의, 공동일에 대한 협력, 현실인식, 박애, 인격존중 등 일반적으로 성격적으로 성숙을 이루고, 자립심, 독립심이 왕성하며,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도 타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성격이 된다.

사실, 유아기(幼兒期)에 충분히 애정의 욕구(need for affection)를 충족시킨 사람은 뒷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많은 행동형식에서 성장욕구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자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애정은, 마치 음식물이 인간의 신체적 성장에 필요한 신체적(physical) 비타민인 것처럼, 정신적 성장에 필요 불가결한 심리적(psychological) 비타민이라 할 수 있다.

4. 존중욕구의 충족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은 개인에게 이에 상응한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를 유발한다. 성격향상을 위한 의욕을 높이고, 정의감, 공정성, 약자에 대한 위로와 원조, 책임감을 강화시킨다. 또 자존심, 힘(力)의 충실감, 부정에 대한 분개를 깊게 느낌과 동시에, 다른 한면에 있어서는 존중을 받는 데서 오는 마음의 여유가 겸손, 희생, 감사, 헌신이라는 대인태도를 형성하는 수도 많다.

존중이라는 욕구충족도 명예, 명성, 권력, 지위, 인기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존중에 그칠 경우에는, 자기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비추어 반드시 충분한 만족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아무리 높은 명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내면을 반성하여 공허감을 느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자기의 생활태도가 자기의 가치관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경우에는 사는 보람을 느끼며, 인생에 대한 적극적·긍정적인 태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자기실현을 위한 의욕을 더욱더 북돋우는 것도, 이와 같은 자존심의 충족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5. 성장욕구의 충족

성장욕구는 지금까지 기술된 생리적 욕구나 안전 및 애정결핍욕구가 모두 충족된 단계에서 일어나

는 고차적인 욕구이며 자기실현의 욕구로서, 자기의 이해(利害)를 넘어서 가치를 추구하는 욕구이다. 따라서, 그것은 진실을 추구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기쁨, 혹은 또 그림이나 조각의 제작에 열중하여 대작을 완성했을 때의 창조적인 희열, 자원봉사자로서 생활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장애인을 원조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을 때 오는 즐거움 등, 진·선·미라는 가치를 실현했을 때의 만족감이 성장욕구의 충족이 가져다주는 경험이다.

성장욕구의 충족에 따른 즐거움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Maslow가 말하는 이른바 '절정경험(peak experience)'은 모두 성장욕구 혹은 자기실현의 욕구의 충족에 따른 정서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절정체험은 깊은 황홀감을 수반하는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고양된 환희의 체험을 지칭하는 개념이며, 이는 극히 일부의 자기실현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개념이다(정인석, 1998).

절정경험의 내용은 경건·귀의·무아라는 종교적 체험, 계시·깨달음·회심·영감이라는 신비적 체험, 헌신·이타·신뢰라는 애정체험, 통찰·섬광·직관이라는 창조적 체험, 감동·공명·찬미라는 미적 체험 등을 모두 포괄한 매우 다양한 체험양식의 종합체를 의미한다(上田吉一, 1994).

여기에서 절정경험을 할 때에 인정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세 가지 들면 정신의 집중성과 가치성 및 절대성이다(上田吉一, 1994). 이를 차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의 집약성(집중성)이다. 일생생활에서는 주변의 여러 가지 사항에 주의나 관심이 쏠려서 정신은 현저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절정경험을 할 때에는 특정의 대상에 정신이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는 투철한 인식을 할 수 있다. 즉, 심신양면으로 열중하기 때문에 고도의 정신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놓쳐버리는 현상에서도 강한 정신의 투입으로 인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한 사고작용이 전개되어 예상외로 쉽게 해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상, 사실에 대한 갑작스런 통찰이라는 창조성이 발휘되는 것은 그 어느 것이나 이러한 정신의 집중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가치성이 높은 경험이다. 절정경험은 결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며, 존재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정의감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근사함(홀름함), 비극적인 체험자와 공감함으로써 고양된 숭고한 정신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깊이 느낄 수 있다. 이리하여, 이러한 체험은 사람으로 하여금 비약적인 성장으로 이끈다.

셋째, 상대적이기보다 절대적인 경험이다. 절정경험은 단지 시공을 초월하고 있다든가, 이해(利害)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시대나 문화를 초월해서 절대적·항구적·보편적·본질적인 것으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예컨대, 훌륭한 그림은 시대를 통해서, 또 사회를 통해서 언제나 항상성을 지닌 미적 가치를 영원히 계속 가질 수 있다. 이런 그림이 가지는 보편적

인미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절정경험을 할 때에만 한정된다.

IV. 욕구계층과 가치계층

여기에서, 우리들은 욕구계층과 가치계층과의 관계를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에 가치를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욕구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인간은 누구나 욕구를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을 보증해 주는 욕구가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와 같은 생존에 불가결한 욕구만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만족하지는 않는다. 다시 진·선·미·정의와 같은 고차적인 가치를 동경하고, 그 실현을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었을 때 인간은 궁극적인 만족을 느낀다. 이에 반해서, 만일 그런 가치의 동경이 성취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우 강한 긴장감이나 초조감에 사로잡힌다. 예컨대, 바른 일이 행해지지 않고 부정(不正)이 통하는 사회를 볼 때 인간은 정의를 바라는 바람의 불만족에서 격렬한 의분(義憤)의 마음에 사로잡힐 것이며, 일이 미완성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면 완전성이라는 가치적 관점에서 이 상태에 대해 강한 초조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기본적 욕구의 불만족에서처럼 심각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역시 이러한 바람의 불만족도 인간존재의 근저에까지 영향을 주는 긴장감과 좌절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에 대한 바람도 기본적인 욕구와는 또 하나의 다른 새로운 욕구로서, 인간을 행동으로 동기짓는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욕구가 그 대상에 대한 가치를 만든다고 하면, 이와 같은 욕구의 입체적 계층은 또한 그에 상응한 대상가치의 입체적 계층도 만든다(上田吉一, 1994). 물론, 결핍욕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가치와 성장욕구의 대상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다르다. 전자의 욕구에 근거하는 가치의식 혹은 가치관은 식욕·성욕·안전욕구·애정욕구·존경욕구 등을 반영하여 물질·에너지·금전이나 권력·명예·지위·명성 등이 높은 가치를 획득한다. 따라서 결핍욕구가 지배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소유하는 자산가·권력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역으로 말하면, 권력자·자산가는 이러한 자기의 소유물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결핍욕구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배를 보지한다.

한편, 성장욕구가 대상이 되는 가치는 주로 문화적 정신적인 가치이다. 진리탐구에 의해 가져오게 되는 학문상의 성과나 과학적인 발견의 가치, 세계에서 빼어난 정신적 지도자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

는 윤리적 도덕적 가치, 작가·예술가와 같은 작품에서 인정되는 예술적 가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동경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한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태도에서도 보여지지만, 이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자유인으로서 이러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자기 스스로 참여하는 행동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인간은 결핍욕구 중심 혹은 성장욕구 중심이라는 자기실현의 단계의 차이에 따라서, 가치관이나 가치의 대상은 달라지게 된다. 애정의 욕구에서 일어나는 가치의 대상을 생각해 보면, 전자의 경우에는 사랑받고 싶은 대상, 애정을 제공해주는 대상, 예컨대 부모·미더운 배우자·지도자가 가치있는 존재라고 생각되며, 후자의 경우는 사랑하고 싶은 대상, 애정을 주고 싶은 대상, 예컨대 불쌍한 아동이 가치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물론 각 개인의 욕구의 존재방식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결핍 욕구 저것은 성장욕구라는 단순한 양자택일적인 형태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 두 욕구형태가 있어, 개인차나 그 때의 조건에 따라 어느 하나의 욕구가 보다 강한 vector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개인의 욕구에 계층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치도 역시 입체적인 계층구조를 지닌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차적 욕구에 대응하는 가치는 개인의 이해와 직접 결부되는 매우 즉물적(即物的)인 가치인데 대하여, 고차적 성장욕구에 대응하는 가치는 인류전체에 보편적인 가치이며, 자기실현하는 인간이 목표로 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장욕구 중심의 사람, 즉 자기실현하는 인간이란 본성으로 갖고 있는 가치가 올바르게 표현되는, 고차적인 가치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上田吉一, 1994). 즉,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욕구하는 바가 곧 가치적인 것으로서, 이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전성격을 총동원한다.

V. 결핍욕구와 성장욕구

지금까지 고찰한 결핍욕구와 성장욕구간의 충족상태의 차이와 욕구계층에 따른 가치의 계층에서도 암시하듯이, 결핍욕구와 성장욕구 사이에는 서로 구별할 수 있는 특성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결핍욕구와 성장욕구 간에 차이있는 특성을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는 네 가지, 즉 ① 긴장의 감소와 증가의 기준, ② 타인지시적·자기지시적 기준, ③ 인지와 정서의 왜곡 유무 기준, ④ 우세성의 유무 기준 등을 들 수 있다(김남성, 1984; 장상호, 1985).

이 네 가지 기준을 들기 전에 먼저, 두 욕구간의 공통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Maslow는 본능잔재

적 욕구(本能殘在的 欲求 : instinctoid)를 결핍욕구와 성장욕구로 양분하면서, 이들은 모든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잔유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는 것이다(Maslow, 1967 ; 장상호, 1985). 그래서 성장욕구는 우세순위가 앞선 결핍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가리워져 있을 뿐이지, 결핍욕구가 만족되면 이 가리워졌던 성장욕구는 차례에 따라 그 본연의 힘을 가지고 등장하게 된다.

다음, 이러한 결핍욕구와 성장욕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첫째, 긴장의 감소와 증가의 기준이다.**

결핍욕구는 긴장의 감소와 균형의 회복을 요구하나, 성장욕구는 긴장의 증가와 성장·발달·발전이라는 양태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은 Freud의 쾌락원리에 의한 긴장감소인간(tension-decrease model)이 아니라, 성장심리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긴장이 지속하는 인간(tension-increase model)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Maslow(1962)에 의해 결핍욕구에 대응해서 성장욕구의 존재를 강조하는 성격이론은 물론, Goldstein(1939)이 이완의 쾌감은 인정하지만 긴장의 쾌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Freud에 비판한 것이라든가, Allport(1955)가 인간의 생성은 긴장을 지속하는 가운데서 진행된다면서 고유자아(proprium)의 개념을 다룬 것이라든가, Frankl이 의미에의 의지(will to meaning)를 심적인 평형 대신 긴장, 즉 삶의 의미를 주는 목표를 계속 찾게 하는 기본적인 동기적인 힘(primary motivation force)으로 역설한 것(고명규, 1995) 등, 이러한 것들은 모두 건강한 성격, 즉 자아실현 인간이 끊임없는 향상적 에너지(성장동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둘째, 타인지시적 기준과 자기지시적 기준이다.

결핍욕구가 타인에 의해서만 만족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환경의존적(타인의존적)이며, 타인에 의하여 지시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주는데 비해, 성장욕구는 자율적이며 자기지시적으로 만족된다. 그러므로 결핍동기가 일어난 사람은 곤란에 직면했을 때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지만, 성장욕구가 일어난 사람은 보다 자조적(自助的)일 수 있다.

고찰한 것처럼 Maslow(1962)는 그의 욕구론에서 인간이 지닌 많은 욕구를 입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욕구위계론을 전개하면서, 기초에 있는 결핍욕구와 고차의 성장욕구로 나누고 두 욕구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즉 결핍욕구란 식욕이나 안전욕구, 애정욕구와 같이 유기체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부족하고 있는, 이른바 빈 구멍이며, 그것은 건강을 위하여 충족되지 않으면 안되며, 더구나 주체 이외의 인간에 의해서 외부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안되는 욕구이다. 이에 대해서, 성장욕구란 결핍욕구가 충분히 충족된 성격이 자기의 충실한 자원이나 에너지를 외계에 방출하여 자기의 성장을 꾀하는 것은 물론, 사람을 사랑한다든가 원조한다든가 생산에 종사하는 것과 같은 진·선·미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려는 욕구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결핍욕구를 구하는 욕구로, 성장욕구를 주는 욕구로, 또는 전자를 타인지배적 욕구로, 후자를 자기지배적 욕구로 표현할 수 있다.

셋째, 인지와 정서의 왜곡 유무 기준이다.

Maslow는 인지상태를 결핍인지(D-cognition)와 성장인지(B-cognition)로 구분했다(장상호, 1985). 즉, 전자는 결핍동기의 만족이나 좌절에서 조직된 인지상태이며, 후자는 성장동기의 만족이나 좌절에서 조직되는 인지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인지의 구분은 인지의 결과에 있지 않고, 그 인지 활동을 하는 동기에 있다.

먼저, 결핍인지는 결핍동기에 의해서 조성되는 긴장의 감소라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만약 그 목적이 일단 달성되면 곧 중지된다. 또한 만약 인지활동을 하는 가운데 안전·소속·애정 등에 위협을 주는 조건이 조성되면 그 인지의 어떤 측면이 무시되거나 혹은 왜곡되어 버리는 속성을 갖고 있다. 예컨대 “미친개에게는 ×××만 보인다.”는 말처럼, 사막에서 목이 마른 대상(豫商)은 멀리 보이는 신기루를 보고 그것이 신기루인지 oasis인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쪽으로 뛰어가게 된다. 이런 경우, 다른 정보는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의 강렬한 욕구와 정서에 토대를 두고 판단하여 맹목적으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결핍인지는 ‘조심성 있는 인지(cautious knowing)’ 이라거나 ‘미숙한 인지(immature knowing)’라고 평할 수 있다(장상호, 1985).

이에 비해서, 성장인지는 어떤 외래적인 동기의 만족이나 좌절과는 독립해서 인지 자체에 목적이 있는 인지의 형태이다. 이 인지는 성장동기, 즉 자아실현의 욕구·인지적 욕구·심리적 욕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세계는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질서·가치·법칙이 있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인간은 그것을 의미있게 조직하고 이해하려는 기본적인 동기를 갖고 있다. 이런 동기 하에서 인지활동을 하는 사람은 설사 외부적인 압력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하며, 그 결과로 자신을 좀더 커지고, 영리해지고, 강해지고, 완전해지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느낀다. 이런 점에서 이 성장인지는 ‘용기있는 인지(courageous knowing)’라든가 ‘성숙한 인지(mature knowing)’라고 평가할 수 있다(장상호, 1985).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인의 동기수준이 그 개인의 정서에 주는 영향도 다를 수 있다. Maslow가 사용한 특별한 용어인 결핍사랑과 존재사랑이 바로 그것이다(上田吉一 역, 1996).

결핍사랑(deficiency love)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는 욕구들 중에서 결핍욕구, 특히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이 동기가 되는 사랑이다. 이러한 결핍사랑을 갖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얻지 못할까봐 몹시 두려워하며, 그에게 맹렬히 의존한다. 이런 사람은 사랑을 박탈당했을 때 마치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열망하고 찾듯이 사랑을 갈구한다.

이에 비해 存在사랑(being love)을 하는 사람들은 결핍에 괴로워하지 않고 사랑을 갈구하지 않

며, 사랑없어도 오랫동안 지낼 수 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받는 만큼 주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정도만큼 타인의 성장과 발달에도 관심을 보이는 利他的인 사랑이다. 이러한 존재사랑에는 기쁨, 즐거움,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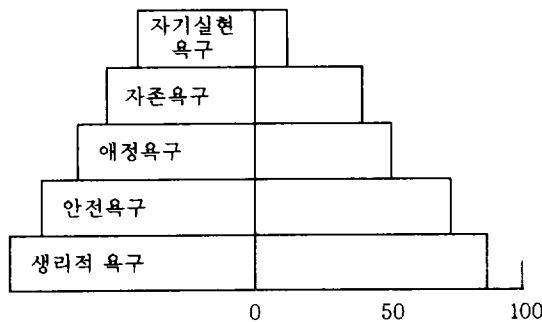
이런 점에서 결핍욕구 중심의 인간은 구하는 사랑의 사람이라면, 성장욕구 중심의 인간은 주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後者は 利他的·타인중심적 사랑의 소유자로, 前者는 利己的·자기중심적 사랑의 소유자로 지칭할 수 있다.

넷째, 우세성의 유무 기준이다.

즉, 두 욕구 자체내의 우세성의 위계(hierarchy of prepotency)로서, 결핍욕구 간에는 우선순위가 있지만 성장욕구 간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다.

고찰한 것처럼 결핍욕구의 경우 안전의 욕구는 인간에게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생리적 욕구가 충분히 만족된 후에야 등장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소속과 애정의 욕구도 그보다 더 우선하는 안전의 욕구가 적정수준에서 만족될 때까지 기다려야 나타난다. 같은 우선 순위가 존중의 욕구에도 적용된다. 한 마디로, Maslow의 욕구위계론은 하위의 욕구에서 점차로 上位의 욕구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Maslow는 인간행동을 지배하는 욕구가 100% 충족되어야 한다고는 보지 않았으며, 하위 욕구(A)가 10% 정도 충족일 때는 상위욕구(B)는 일어나지 않으며, A가 25%일 때는 B는 5%, A가 75% 충족일 때는 B는 60% 나타난다고 말했다. 특히 Maslow는 평균적인 인간의 각 계층의 욕구충족의 정도를 생리적 욕구 85%, 안전 70%, 소속·애정 50%, 자존 40%, 자아실현 10%정도 충족된 사람이라고 다음 <그림 V-1>와 같이 제시했다(정인석, 1987).



<그림 V-1> 욕구의 계층과 만족도(출처 : 정인석, 1987)

한편, Maslow는 성장동기들(meta-needs)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아 일반화된 위계(generalized hierarchy)가 없다는 이론을 주장했다(Hjelle and Ziegler, 1981). 즉, 메타동기화된 사람들의 한 동기는 쉽게 다른 동기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선·미·법·질서·정의·완전 등과 같은 '존재가치' 또는 메타동기들에 지배된다는 것은 그들의 경험을 넓힘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기쁨을 증대시킨다는 의미 외에도, 그들의 일에 대한 열렬한 헌신을 통하여 메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자기실현을 꾀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즉, 일을 통하여 주부는 가족건강을, 학자와 과학자는 진리를, 예술가는 미를, 법률가는 정의를 추구한다. 그들은 돈과 명예 혹은 권력을 위하여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욕구를 만족시키고 자기의 능력에 도전함은 물론 능력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이끌며,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하는 사람인가(正體感)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에 종사한다(上田吉一 역, 1996).

여기서 일에 몰두한다는 것은 강인한 의지로써 무엇을 완수하려고 하는 努力型의 활동이 아니라, 無意志(effortlessness)라는 말 그대로 힘들이지 않고 어떤 흥미있는 과제(일)에 스스로 깊이 빠져들 어간다는 遊戱型의 활동이라는 것을 뜻하며, 이것이 성취동기의 개념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또 하나의 성장동기의 특성이기도 하다(上田吉一, 1994). 그래서, Maslow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일을 그 밖의 어떤 다른 일보다도 더 즐겨하며, 휴가·흥미·오락·휴식 혹은 취미와 같은 것에 대한 생각은 자기의 사명감·소명·일 등과 융합이 된다고 지적하였다(上田吉一 역, 1996).

이상의 기준에서 결핍욕구와 성장욕구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불교적 입장에서 보는 서로 상반되는 두 마음 중 탐욕과 무지는 결핍욕구에, 지혜와 자비는 성장욕구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VI. 건강한 인간의 욕구 특성

우리는 지금까지 욕구의 이론과 더불어 욕구계층에 따른 욕구충족과 가치계층을 분석함으로써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결핍욕구의 특성과 성장욕구의 특성을 밝혔고, 이러한 욕구특성에 따른 저차원적·고차원적 가치계층도 도출·대비시켰다. 특히 여기서 나타나는 제반성장욕구의 특성은 자아실현인, 즉 건강한 인간의 욕구의 구조적 특성을 묘사하는데 훌륭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인간이 지닌 이러한 욕구의 기능적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

저 건강한 성격발달에 필요한 기본조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인간육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1. 인간육구에 대한 기본적 태도

인간육구에 대한 기본적 태도에는 다음 세 가지 태도가 있다. 즉, 그것은 ① 육구는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이다. ② 기본적인 육구일수록 먼저 충족시킨다. ③ 성장육구를 자극하여 이를 충족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구는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이다.

먼저, 우리들은 육구를 인간의 선천적인 경향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육구를 인간의 본질과는 서로 용납되지 않는 동물적 충동으로 보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생리학적·심리학적 법칙에 거역하는 것을 뜻하며, 이를 억압한 결과는 갈등을 강화하여 불안이나 죄의식을 더욱 통렬하게 느끼게 할 따름이다. 한 예로 성이란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면이므로, 성 자체는 결코 불결시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의 유일한 지고의 가치로 올려 받들 것도 아닌 것이다(서봉연·이춘재, 1970). 만일 우리가 성을 죄악시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인간 존재의 정상한 일부를 부당하게 거부하고 인간생활의 정당한 일면을 무리하게 억압해서 불안정한 편파적인 인간이 될 수 밖에 없다. 김정규(1995)에 의하면 개체가 자신의 전체를 통합적으로 지각하지 못하고 일부분만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성격의 여러 부분들을 자신으로부터 소외시켜 이들과 접촉하지 못하는 사람을 심리장애인으로 간주한다. Perls(1969)도 이러한 성격의 소외된 부분을 '성격의 구멍'이라고 불렀으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억압한 사람은 생식기 부분에 '구멍'이 났다고 본다.

이와 반대로 성생활만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가치로운 것으로 여기고 이에 탐닉한다면, 인간생활을 동물의 차원으로 전락시키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안정되고 조화를 이룬 성격을 소유하고 건전한 인간생활을 하자면, 성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좀 더 부연하면, 인간의 가치를 육구의 부정에 두고 가치실현과 욕구충족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도록 요구한다면, 그것은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가치의 실현에서의 역할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욕구를 부정하는 일은 모두가 가치로 통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上田吉一, 1993).

사실, 현실생활에 있어서는 욕구가 모두 충족되는 일은 적으며, 오히려 이기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데에서 사회적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취해지는 행

동이나 태도를 그대로 인간이 취해야 할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말(本末)의 전도(顛倒)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욕구를 부정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욕구를 어떻게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바람직한 욕구충족의 모습 속에서 인간으로서 가치있는 행동형식과 부정되어야 할 행동형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기본적인 욕구일수록 먼저 충족시킨다.

인간의 욕구는 사회규범과 충돌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때때로 욕구충족을 소홀히 한다든가, 욕구 자체를 부정한다든가, 억압한다든가 한다. 또한 환경에 의한 제한된 욕구충족 수단 때문에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수도 많다. 그러나, 성격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이다. 인간이 욕구를 가진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인간다운 방법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성격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충분한 안정성이 있는 곳에 인간은 보다 고차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초적인 욕구에서 고차적인 욕구로 전개되는 과정은, Maslow(1962)의 욕구위계론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다. 즉, 건강을 위해 충족되고 타인에 의해 충족되는 결핍욕구가 충분히 충족된 성격이, 자기의 에너지를 외부에 방출하여 자기의 성장과 보편적인 가치의 실현을 꾀하는 성장욕구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성장욕구를 자극하여 이를 충족시키고 발전시킨다.

창조성·애정·자기실현이라는 '주는 욕구'를 강화시키고 전 성격이 축적된 에너지를 그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데 충당할 때에 심신기능의 정체(停滯)는 해소되며, 성격전체의 생명활동은 약동하게 된다.

그래서 '주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격은 그의 모든 기능을 통일하고 또 모든 기능을 동원함으로써 조금도 정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리해서, '주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은 성격의 건강성을 두드러지게 증진시키게 된다. 그리고 문화인이고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가장 상위의 성장욕구에 깊은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또 만족스럽게 성취되고 있는 사람들이다(서봉연·이춘재, 1970).

그러므로 창조성을 높이는 환경, 풍부한 애정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場,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제조건을 만들어내는 일이야말로 건강한 성격을 형성함에 있어서 필수적 요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 건강한 인간의 욕구 특성

그러면, 이와 같은 인간욕구에 대한 기본적 태도가 확립된 건강한 인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욕구의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에 대한 上田吉一(1993)의 견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욕구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것은 ① 건강한 인간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 사람이다. ② 최소한의 결핍욕구와 최대한의 성장욕구를 지닌다. ③ 결핍욕구와 성장욕구간의 기능적 관계가 원활하다. ④ 창조성을 발휘하기 쉽다는 등이다.

이러한 네 가지 욕구의 구조적 특성은 곧 정신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尺度로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첫째, 건강한 인간은 기본적 욕구(구하는 욕구)가 충족된 인간이다.

인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기 속에 결핍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불안이나 위협을 느끼게 된다. 성격 내의 공허감은 강한 긴장감이나 혹은 초조감을 불러 일으켜서, 자기 내부에 결핍하고 있는 것을 보충하려고 외부의 특정 대상에 대한 뚜렷한 집착과 동경의 태도를 취한다. 결핍이 더욱 심해지면 인지는 왜곡되고, 행동할 의욕도 상실되며, 드디어는 결핍증에 빠지게 된다.

이에 반해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 성격은 이와 같은 에너지 근원인 결핍감을 자각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그 부족으로 인해 고민하는 일도 없다. 그는 육체적 충족감과 정신적 안정감을 얻고, 더욱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갈 수가 있다. 말하자면, 기본적 욕구는 자기실현을 위한 행동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물론, 건강한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한 행동은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수도 있다. 한 평생 대작(大作)과 씨름하는 화가가 그 제작에 열중한 나머지 침식을 잊는다는 예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자기실현의 욕구를 위해서 결코 기본적 욕구를 희생한 것도 아니며, 또 그 욕구를 내버린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기초가 되는 욕구는 평소에 충분히 충족되고 있어서 그 필요성이 강하게 자극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실현을 위한 행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종래 Freud 이론 등에서는 욕구의 선택은 때때로 저차원적 욕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고차원적 욕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오히려 기본적 욕구가 한 단계 한 단계 충족되어 그 확고한 기반위에서 보다 고차원적인 욕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본 Maslow(1962)의 욕구계층이론에서 안전성이 확실해지면 보다 높은 욕구나 충동을 발현케 하여 우세해지게 하지만, 안전이 위협되면 그것은 한층 낮은 기본적인 기초로 퇴행하게 된다는 것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한 마디로, 건강한 인간에서 볼 수 있는 고차적인 욕구나 충동은 기본적 욕구가 충분히 보증되고

안전이 확보되는 데에서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강조할 수 있다.

둘째, 건강한 인간은 최소한의 '구하는 욕구'와 최대한의 '주는 욕구'를 가진 성격이다.

인간은 누구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외계에서 구함과 동시에, 이것을 토대로 자기의 실현과 외부에 대해서 생산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나, 건강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구하는 것에 비해서 외계에 주는 것이 훨씬 많다. 즉, 건강한 사람은 성격 내에 갈등이나 분열이 없기 때문에 외계에서 받아들인 에너지는 전부 자기를 형성하는 데에, 혹은 창조적 활동을 하는 데에, 혹은 애정이나 관심을 주는 데에 충당한다.

그런데, 불건강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여진 정신적·물질적 양식은 거의 모두 성격 내의 신경증적 갈등 속에서 낭비된다. 그런 결과, 구한 것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성과는 매우 조금밖에 올리지 못한다. 그들은 음식물에서도 지식에서도 애정에서도 싫증내는 일없이 이들을 구하지만, 이에 상응할만한 활동이나 창조적 제작 그리고 애정을 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신경증적 성격은 결핍욕구가 지배적인 비생산적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자기의 성격 내부에 끝없는 에너지 소모를 가져오게 하는 내전(內戰)을 안고 있다. 특히, 욕구충동과 초자아간의 대립은 자아의 약한 체제와 더불어 점점 격렬해져서, 성격 내의 모든 에너지를 이 싸움에 흡수해 버리게 된다. 비록 외계의 욕구대상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에너지의 실조상태(失調狀態)는 일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그 대상을 맹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획득하려는 행동을 취한다. 또 한편, 원래 외계로 향해야 할 생산적 행동의 에너지도 역시 성격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 거둬들인다. 따라서 그 결과, 그들의 생산성과 성격적 온화성 및 성장을 위한 의욕은 펍 많이 줄어들게 된다. 어쨌든, 여기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내부에서 끝없는 공허감을 느끼고 말할 수 없는 불안에서 오는 소외감을 주위의 온갖 대상으로서 이를 보충하려고 발버둥치는, 소위 진정한 자기를 상실한 자기도취적 인간(narcissist)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한 인간은 항상 정신적·물질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산 접촉을 유지한다. 개인의 결핍상태는 즉시 주위의 자원에 의해서 충족되어 오랫동안 공허감이 지배되지 않는다. 즉, 개인은 상당히 생활에 융통성을 지닌 안정상태에 있다. 따라서, 자기의 결핍상태를 의식하는 일도, 그것을 보충하는 대상을 주위에서 찾으려는 일도 비교적 적다. 그는 이와 같이 이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로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

건강한 인간의 안정성은 또한, 바로 자기의 주위에 대한 수용적 태도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주위의 대상은 모두 자기의 욕구충족에 대한 수단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한 대상은 모두 대상 그 자연 그대로, 즉 물건은 물건으로서, 개인은 개인으로서 수용되고 존중된다. 말하자면, 대상은 그 본질을 전개해 나갈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본질의 전개과정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질은 물질로서(단지 개인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회적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을 만한 생산성이 있는 것으로 창조될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각각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기실현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애정과 존경의 마음이 집중될 것이다. 자기에 대해서도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해서 자기실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어느 쪽으로 나아가든, 이미 충족된 인간은 충만한 여력(餘力)을 창조성에, 애정에, 아니면 자기실현에 충당한다.

셋째, 건강한 인간은 결핍욕구와 성장욕구간의 기능적 관계가 원활하다.

인간에게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면과 외부에 에너지를 방출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바람직한 상태에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에너지의 입력에서나 출력에서나 매우 원활하여 에너지 회전이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구구조나 생산구조에 있어서나 에너지 회전이 완만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또 대량소비와 대량생산이 가능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비교적 소량의 소비와 소량의 생산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에 있어서나 속도에 있어서나 소비와 생산성이 많은 성격일수록 건강성도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소비-생산기능이 왕성하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주체가 될 사람의 심신의 기능이 모두 뛰어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 심신기능이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상대적으로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만큼 심신 양면이 지닌 기관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함으로써 가장 효율성이 높은 기능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효율성이 높은 기능발휘는, 결국 커다란 소비와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결과가 된다.

한편, 인간이 상대적으로 불건강하면 이와 같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에너지 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생명활동 전반에 걸쳐서 정체와 축소를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 물론, 이미 기술한 것처럼 건강한 성격에 있어서는 '구하는 욕구'에 비교해서 '주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욕구기능이 일반적으로 증진한다 하더라도 이 욕구관계를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뛰어난 건강을 지닌 사람은 성격이 발달함에 따라서 당연히 '구하는 욕구'가 확대해간다지만 이것은 최소한으로 그치므로, 이를 결코 바람(願望)이라는 이상양진(異常昂進)과는 혼동해서는 안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주는 욕구'가 증진하는 것을 별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욕구'만 뚜렷이 증대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형태는 어떤 생명기능의 발달이 아니라 신경증적 욕구팽창(欲求膨脹)이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어쨌든, 현실과 밀접한 접촉을 결한 욕구팽창과 성숙한 성격에서 볼 수 있는 욕구기능의 발달과는 본질적으로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강한 인간은 창조성을 발휘하기 쉬운 성격이다.

건강한 인간이 지닌 성장욕구와 창조성과의 관계를 살피기 전에, 창조성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보기로 한다. 하나는 창조성은 충동부정에 따른 신경증적 성격의 산물이라고 보는 견해이고, 또 하나는 충동공정의 성과로 보는 견해이다. 전자는 Freud 등이 주장하는 주로 천재와 같은 사람에서 볼 수 있는 창조성이며, 후자는 신 프로이드주의자나 성격심리학자들에서 볼 수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창조성을 말한다. Maslow(1959)도 “특히 능력을 지닌 창조성과 자기실현의 창조성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후자는 보다 단적으로 성격으로부터 나오고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볼 수 있다.”(p.85)고 기술하면서, 후자의 한 예로 충분한 교육도 받지 못한 가난한 주부이지만 훌륭한 요리를 만들고 아름다운 아이디어로써 가정 꾸미기에 힘쓰는 모습에서 우리는 아내이자 어머니인 그 여자에게서 창조성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Fromm(1959)도 역시 “창조성에는 그림, 조각, 음악, 시, 극 등 타인에게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의미에서의 창조성과, 이런 의미의 창조성의 기반이 되기는 하지만 세상에 독창적인 사물을 조금도 만들지 않더라도 존재할 수 있는 태도로서의 창조성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p44)고 밝히면서, 주로 생산적 활동을 통한 성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창조성과 외계에 대한 태도 혹은 준비라는 것에 중점을 두는 창조성을 구별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창조성을 특정인의 전유물인 특수능력으로 보는 견해와 만인이 소유하는 일반능력으로 보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강봉규, 1992). 이런 경우 전자는 생득적인 능력이 중시되어 교육적인 노력은 소극적으로 되기 쉬운 반면, 후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조의 싹을 지녀 교육적 활동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래의 상식으로는 창조성은 정신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위대한 그림을 손에 넣거나 혹은 감각기관의 장애에도 꺾이지 않고 위대한 작곡을 완성한 병과 싸운 천재에서 볼 수 있는 귀중한 특성이라고 생각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창조성은 이와 같은 형태의 것만으로 그치지 않음은, Maslow가 든 평범한 주부의 예가 입증해 준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창조성은 결코 천재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발휘할 수 있는 창조성이며, 그것은 누구나 건강하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더욱이 적극적인 성장을 위한 욕구를 갖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작용케 하는 조건에 놓여지기만 하면 발휘되는 성질의 창조성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장욕구중심의 인간은 창조성을 발휘하기 쉬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上田吉一(1993)의 견해에 의하면 건강한 인간은 창조를 위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있다는 점, ② 모든 경험에 개방적이라는 점, ③ 창조의 평가기준을 스스로 설정한다는 점, ④ 의식적 기능과 무의식적 기능이 동시에 활발히 작용한다는 점 등이다. 개별적인 항목에 따라서 언급하기로 한다.

① 건강한 인간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있다.

이미 고찰한 것처럼 건강한 인간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 성격이므로 창조작용은 이미 이러한 생리적·심리적 결핍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어 이미 그러한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일도 없는가 하면, 또 그러한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사람, 즉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 충분한 餘力을 가진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이 지배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Freud나 Jung이 libido로 부르고, 또 Janet 등이 심적 긴장력으로 받아들이는 生命力이 성격내부에 가득 넘치고 있으며, 이 축적된 생명 에너지는 다시 외계를 향해서 해발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특정 과제에 응집하여 다시 통일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결핍욕구가 충족되고 성격 내에 일정한 potentiality를 지닌 성장욕구중심의 성격이야말로, 창조를 위한 기초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② 건강한 인간은 경험을 넓게 받아들인다.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각기관을 작용하여 대상을 보고 듣지 않으면 안된다. 대상에 대한 인지가 객관적이고 현실적이면 그만큼 그 대상을 인식한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 즉 행위나 태도도 현실적이며, 또한 그 장(場)에 잘 적응된 것이 된다. 이에 반해서, 신경증적으로 사실을 투사하고 왜곡한 다든가 하면 현실파악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으로 하여금 쓸데없이 현실과 유리된 공상으로 달리게 하는 일은 있어도, 확고하게 현실에 기초를 둔 창조력을 구사케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인이 모든 경험을 받아들이고 유기체에 작용하는 모든 감각이나 지각을 동원하여 될 수 있는 한 객관적인 인식을 하는 것이, 창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성장욕구가 지배적인 성격은 Rogers도 말한 것처럼 경험에 개방된 성격이다. 즉 Rogers(1961)에 의하면 실현경향성이 구체적인 창조적 성격으로 되기 위해서는 경험에 개방, 다시 말해서 자아에 위협이 되는 경험도 억압한다든가 왜곡하지 않고 모두 이를 인식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객관적 태도를 계속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개방된 성격에서는 자기는 물론 타인에 대한 경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경험이 주는 자극도 조금도 왜곡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식한다. 그는 정신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인식할 대상에 대해서도 주관적으로 되지 않고 그 대상의 특질을 정확하게 지각하여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우리들은 성장욕구를 지닌 인간이야말로 가장 창조성이 높은 성격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창조적 행위로서 과학적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질은 '보편성과 객관성'이며, 그것은 또한 객관성을 성립시키는 근거가 되는 실제세계에 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접근이지만, 이와 같은 창조적 태도는 진실을 탐구하려는 강력한 충동을 지닌, 이른바 성장욕구중심의 인간에서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Freud도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알아내려는 노력, 즉 문제에 대해 더 자세한 증거를 검토할 수 있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의문을 던지는 현실검증(reality testing)하는 기능을 현실원칙(reality principle)이라 설명하면서, 이를 어떤 증거나 논리에 의하기보다는 욕구나 정서에 의해 지각·기억·상상 등의 인지내용이 결정되는 경향인 쾌락원칙(pleasure principle)과 대비시키고 있다(한국응용심리학회, 1972). 여기서 우리는 자아실현인의 높은 예리한 현실인식능력은 바로 이런 현실원칙에 지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③ 창조를 위한 평가기준을 스스로 설정한다.

창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평가의 기초를 내적인 것에 두는 데에 있다. Rogers(1961)도 실현 경향성이 구체적인 창조적 성격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즉, 창조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창조의 성과는 타인의 칭찬이나 비판에 의해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의 주체적인 평가에 기초해서 판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부연하면, 창조의 성과는 타인의 일반적 가치기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개성에서 일어난 독자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창조성은 독창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창조의 성패(成敗)는 창조자 자신의 주체적 판단에 맡겨져야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에 반하여, 창조의 가치를 외부 사람들의 승인이나 비판에 구하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조를 할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결핍욕구중심의 인간은 타인에 의해서만 만족될 수 있고 타인에 의해 지시받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성장욕구중심의 인간은 자율적으로 자기지시적으로 만족되는 경향을 재확인할 수 있다.

성장욕구중심의 성격은 이 점에 대해서도 창조성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이다. 이미 충족된 인간으로서, 그들은 기본적 욕구의 대상을 외계에서 구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외계에 의존하지도, 외계의 의향에 좌우되지도 않고, 전혀 자주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창조적 행위를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신의 주체적 감상안(鑑賞眼)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다. 이래서 창조의 작용은 그들에 의해서 비로소 추진되어 간다고 말할 수 있다.

④ 의식적 기능과 무의식적 기능을 동시에 활발히 발휘한다.

창조작용은 단지 지적·관념적 수준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성격의 근본적인 생명력의 전개과정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진정한 창조성은 성격이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장(場 : field)에서 일어난다. 물론 어떠한 창조이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현실세계를 반영하는 이상, 지적

경험에 충분히 기초를 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단편적인 사실 그대로서는 아무리 객관성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창조적 산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재(素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창조성은 이러한 사실을 개인의 성격적 통합력에 의해서 하나의 통일된 의미로 관련되어 체계화되었을 때, 그것은 비로소 창조물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의 통합적 작용은 개인의 지적 기능만으로 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적 기능의 특질은 분석적 작용을 하는데 있고, 통합적 작용은 성격의 보다 내부 영역, 즉 심층에서의 동향(動向)을 솔직히 나타내는 데에 있다. 창조작용은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로서 각 개인이 그를 대신할 수 없는 특질을(그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특질) 보편적인 현실경험을 매개로 해서 나타난 것이지만, 이런 경우 개인은 지적 기능은 물론 정외적 기능이나 심층의 무의식적 기능도 모두 하나가 되어 이 창조라는 작업에 동원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인간성의 심층에서 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와 이 에너지를 독창적으로 나타내는 발상법(發想法)은, 창조력을 발달시키는 가장 풍부한 원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이 성장을 향한 본질적 욕구야말로 그것은 곧 창조성의 욕구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이를 존중해서 육성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들도 인간의 충동의 분방한 발동이 그대로 창조력이 된다는가 문화형식의 요인이 된다는 생각에는 의문을 품는다. 창조력은 오히려 이런 충동력의 억제와 격돌 속에서 점차 순화되어 발현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Freud가 말한 것처럼 창조력이 차단된 충동의 대리나 방위기제라든가, 문화가 신경증적 성격구조의 잔재로 보는 것과 같은 극단론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우리를 인간은 본질적으로 충동과 융합하고 동일한 형태로 창조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충동을 정면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조장함으로써 비로소 창조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들은 건강한 인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욕구의 특성을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성장욕구중심의 인간은 결핍욕구중심의 인간과는 다른 욕구의 구조적 특징이 있음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러한 네 가지 욕구의 특성은 인간성격의 건강성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VII. 결 어 : 성장욕구의 교육적 함의

고찰한 것처럼 인간이 갖는 결핍욕구의 성질과 성장욕구의 그것은 인간을 보는 두 견해, 즉 전자는

인간은 그의 통제력 밖의 힘에 쫓아서 행동한다는 점에서 인간에 대한 결정론적 입장을, 후자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행위자(actors)(Hilgard, et al., 1979)라는 점에서 자유의지론적 입장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Patterson(1972)의 두 개의 대립된 인간모형, 즉 반응적인 존재관과 형성과정에 있는 존재관으로 압축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는 Allport(1962)가 제시한 가이드선스를 위한 세 가지 심리학적 모델의 바탕이 된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반응하는 존재로서의 인간과 심층반응하는 인간은 모두 내외의 자극에 의해 반응한다는 공통점에서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반응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다루어, 이를 형성과정에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과 대비시켰다. 여기서 물론 전자의 반응하는 존재는 결정론적 인간관 혹은 결핍욕구중심의 인간관을, 후자의 형성과정의 존재는 자유의지론적 인간관 혹은 성장욕구중심의 인간관을 지칭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인간에 대한 대립된 가정의 하나인 자유의지(free-will)를 결정론(determinism)과 대비시키면서 아동·학생들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교육적 노력, 즉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의미와 시사를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교육의 기능은 결핍욕구와 성장욕구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충족시키는데 있다.

인간교육은 인간의 성질에 부합되고 인간 속에 정착될 수 있게 지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이란 개인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며, 또 생물학적인 존재인 동시에 가치지향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데, 개인성과 사회성 그리고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성질과 가치지향적인 존재로서의 성질 간에는 상당한 부분이 서로 상반되어 공히 용납되기 어려운 갈등현상을 빚기도 한다. 예컨대, 인간의 개인성은 자기만족과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해가는 성질이라면, 인간의 사회성은 자기만족과 자기이익을 억제하면서 타인과 협동하고 공익을 존중하는 성질로, 그 어느 한 쪽을 취하려면 다른 한 쪽을 억제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많다. 또 인간의 생물성이란 규범이나 질서에 구애됨이 없이 생물학적 욕구, 예컨대 식욕이나 성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성질이라면, 인간의 가치지향성이란 생물학적 욕구를 억제하고 인내하면서까지 규범이나 질서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성질이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고 갈등되는 성질들을 다함께 가지는 다면적 존재(多面的 存在)가 인간이라면 아동·학생들에게는 상반되는 두 성질들을 다 같이 용납시키고 공존시켜 나가는 것이, 인간의 성질에 부합되는 생활지도라고 할 수 있다.

Freud의 성격구조론에서 건전한 성격의 소유자에게는 id·Ego·Superego의 3체계가 조화롭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환경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Hall, 1954)는 점에서, Berne에서도 건강한 사람이란 P-A-C간에 정신적 에너지가 서로 교류되면서 자기의 욕구와 상황의 요구에 알맞게 자아상태를 자유롭게 방출하는 사람(우재현, 1992)이라는 점에서, 이 인간이 갖는 복합적 성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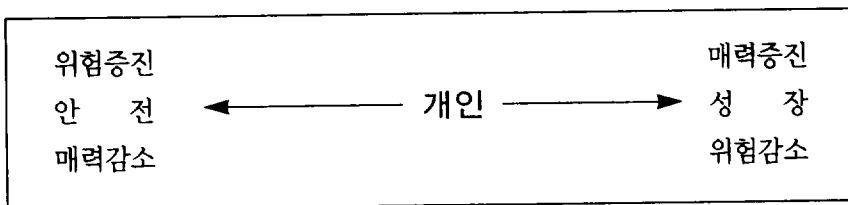
공존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도덕적 지도를 한 예로 들면 그것은 다분히 개인성보다는 사회성을 강조하는 방향의 지도요, 생물성 보다는 가치지향의 방향을 강조하는 지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도덕성 지도가 개인성이나 생물성을 부정하는 지도이어서는 안되고, 언제 어느 때나 도덕적 행위만 있어야 한다는 지도는 인간을 부정하는 도덕성 지도이며, 그와 같은 지도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예컨대, 정신건강을 해치고, 정서적인 메마름을 가져오게 하고 풍부한 인간성이 없는 목적같은 성격의 소유자를 만드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낳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때로는 탈도덕적 해발(脫道德的 解發), 즉 규칙이나 규범에서 벗어난 자유를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결들인 도덕적 지도가 인간의 성질에 부합된 도덕적 지도가 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교육은 아동·학생들의 현재의 욕구(하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욕구를 개발시켜주는 일도 중요하다. 그런데, Maslow의 욕구위계론에서 본 것처럼, 상위단계의 욕구들은 모든 아동·학생들이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성장욕구는 그 우세순위에 있어 결핍욕구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이 하위욕구가 충분히 적정한 수준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그 상위욕구는 억제되고 발현되지 않는다. 즉, 하위욕구들이 적정수준에서 충족되었을 때만 보다 상위욕구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된 사람만이 기회가 주어질 때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Maslow는 조력자(교사나 부모 등)가 성장욕구를 복돋우기 위하여 결핍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 모종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력은 오히려 외래적인 훈련이나 강의보다는 조력자로부터 더욱 세심한 배려나 노력을 요구하며, 다음 두 가지 원리에 의해 진행된다. 하나는 개인이 선택상황에서 안전이 가져오는 매력을 최소화하고 안전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성장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성장의 매력을 높이는 것이다(장상호, 1985).

위의 두 원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VII-1>과 같다.



<그림 VII-1> 안전과 성장에 대한 매력과 위험의 관계

여기서 안전(safety)이란 성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진취적이라기보다는 현상유지적이며, 진보적

이러기보다는 보수적이며, 방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성장(growth)이란 안전의 반대개념으로 진취적·진보적이다.

이런 원리를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어린이가 부모 곁을 떠나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는 경우에 적용해 보자. 어머니가 곁에 계속 있을 것이라는 어린이의 확신감은 호기심을 일으키는 주위 환경에서 그의 걸음마를 시험하여 짧은 나들이를 한다. 점차, 그 나들이의 범위와 자신이 가진 능력의 시험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어린이는 미지의 위험스러운 세계를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어머니가 갑자기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면 그는 불안에 사로잡혀 세계를 탐색하기를 중단하고 안전의 길을 택하며, 그가 탐색에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손실하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학교의 학습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학교환경은 가끔 불필요한 정도로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좌절, 실패, 위협, 비판, 불인정, 타인과의 부당한 경쟁, 조롱, 외부에서 내린 기준에 대한 엄격한 준수 등이 팽배된 분위기 내에서는 아동·학생들은 그들의 능력을 자유롭게 시험할 수 없다. 그들은 성장을 포기하고, 그 이전에 우세하게 작용하는 안전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그 상황이 칭찬을 하고, 권장하고, 수용하고, 재확인하고, 지지하고, 비위협적이고, 협동적이고, 허용적이고, 비교가 적은 상황으로 바뀌진다면, 아동·학생들은 충분한 안전감을 갖고 성장으로 향하는 새로운 경험을 시도할 것이다. 이로부터 그는 성장에서 오는 자체의 내발적인 보상을 받게 되며 더욱 높고, 깊고, 풍부한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다.

결국, 성장 즉 자아실현이란 성장의 기쁨과 안전의 위험성이, 성장의 불안과 안전의 매력보다 클 때에 한해서 성취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장상호, 1985). 이런 점에서, 성장은 고통스러운 선택에서 오는 즐거움이라는 파라독스를 내포한다. 성장의 길을 택한 인간은 각 단계에 그에게 익숙하지 못하고 어쩌면 위험할지도 모르는 계단을 올라야 한다. 이는 또한 익숙하고 만족스럽고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자주 향수, 공포, 고독을 동반하는 이별을 뜻하기도 한다. 이는 또한 좀더 부담스럽고, 책임이 무겁고,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단순하고 안이한 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성장은 이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용단을 요구한다.

둘째, 성장욕구중심의 바람직한 인간상은 자아실현인이다.

개인의 욕구충족에 대한 타인의존적·자기의존적 경향성은, 자연히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한 그 바람직성의 기준을 외재하는 사회 속에서 찾느냐 아니면 개인 내부의 어떤 상태에서 찾느냐의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한다. 즉 하나는 주어진 사회의 표준에 일치하는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실현하고 그것을 거리낌없이 표현하는 인간이다. 전자는 사회화된 인간(socialized person)이며, 후자는 자아실현인(self-realizer)이다(장상호, 1985).

사회화된 인간은 특정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표준에 일치함으로써 그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인간이다. 사회는 이런 개인에게 권력, 위세, 부귀영화 등을 배분함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화된 인간, 즉 잘 적응하는 인간(well-adjusted person)은 다른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장상호, 1985). 특히 그 사회가 건전하지 못할 경우, 그 구성원은 그 존재양식에 대해서 '불편감(disease)'을 느끼게 된다. 사회체제는 이따금 구성원의 어느 누구에게도 봉사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체만을 존속시키려는 부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부면이 어떤 특종사회에 많으면 많을 수록, 그리고 그 체제에 더욱 잘 적응하면 할수록, 개인은 존재적 문제(existential problem)에 봉착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Fromm(1941)이 지적한 히틀러 치하의 권위주의적인 대중(authoritarian people)이고, Riesman(1950)이 지적한 타인지향적 인간(other-directed person)이고, Whyte(1956)가 묘사한 조직 속의 인간(organization man) 등이다. 이들은 분명히 사회화의 소산으로서 당대의 사회체제에 안주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은 눈에 띄지 않는 소외의 증상(무감각·권태·무의미성·증오 등)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군상(群像)인 것이다.

한편, 자아실현인은 자신의 고유성과 통합성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유감없이 표현하는 사람이다. 각 개인은 타인에 의해서 대치되거나 공유할 수 없는 고유한 '자아(self)'를 갖고 있다고 가정된다. 개인은 그 자아가 지향하는 방향의 인간이 되어 '진실한 생활(authentic life)'을 영위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무궁화꽃이 풍부한 무궁화의 형태를 취하고, 장미꽃이나 조화(造花)의 형태가 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생활에 비유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결핍욕구중심의 인간은 사회화된 인간을 이상시한다면, 성장욕구 중심의 인간은 자아실현인을 숭상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성장욕구중심의 인간관은 자유와 책임을 중요시한다.

성장욕구중심의 인간관은 또한 인간이 환경의 예속물이 아니라 主體的 創造者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개인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자유에는 그 행사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여 자유와 방임의 개념을 똑바로 구분해 주기를 바란다(김은산 역, 1987). 또한 서로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준칙은, 자유가 결코 무질서를 의미하지 않음을 내포한다. 자유는 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질서를 찾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 따라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경험시키는 자유로운 생활방식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높일 것이고, 그런 시민이 모인 사회는 타율이 아닌 自律에 의해서 활기찬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결핍욕구중심의 그것은 개인들에게 자유를 주면 제멋대로 변하기 때문에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개인들을 불신하며, 그러한 불신 풍토의 학교나 직장에서 생활하는 그들은 순종과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기를 강요받는다. 일방적이고 上意下達式인 지시와 강제에 의한 지도와 교

육은 개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창의성·독립성·대담성·자율성 등을 약화시키거나 잃어버리게 하여, 自己疎外(self-alienation)를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의 숙명처럼 받아들이게 한다(장상호, 1985). 그들은 겉으로는 학교나 당국의 지시에 응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심에는 저항과 무관심 및 적개심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들에게 행동의 자유가 주어질 때는 그것을 무질서하게 표출한다. 그래서, 학교나 직장은 그들을 불신하며, 외부적 간섭항목을 하나 더 추가시킨다. 여기서의 비극은 자유의 범위가 점차 축소된다는 것 외에, 학생이나 부하를 노예화시킨 교사나 상관들도 노예가 된다는 사실이다. 감시하는 사람은 감시당하는 사람에 의해서 監禁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동·학생의 교육을 논할 경우, 우리는 통제와 자유의 문제는 서로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서로 독립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자유와 통제는 서로 결정하는 입장에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서 강조하는 행동(behavior)·인지(perception)·환경(environment)의 세 가지는 서로 결정한다는 상호결정론(reciprocal determinism)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행동주의의 기본입장인 환경결정론과 인본주의 심리학의 핵심문제인 자유와의 관계로 대변될 수 있다.

여기서 환경결정론이란 환경(타인)에 의하여 주체성이 없는 개인(인지와 행동 포함)이 수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며, 자유란 결정론의 반대개념으로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자기실현의 주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같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통제와 자유라는 갈등적 관계에 대하여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란 외적 영향(통제)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주위의 상황에 대하여 자기태도를 취하는 자유라고 말함으로써 이의 해결의 실마리를 든다(김남성, 1984). 즉, 자유란 주어진 환경 내에서 행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alternatives)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이며, 또 선택할 권리에 대한 문제로 지목한다. 예컨대, 쥐가 전기쇼크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회피할 것이냐, 스위치를 꺼서 단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쇼크를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이 환경과 개인의 상호결정적인 성질을 잘 설명해준다. Frankl의 “인간은 정신적·신체적 불안이란 소름끼치는 조건 속에서도 생을 의미충만하고 합목적적으로 만든 것은 빼앗길 수 없는 이런 정신적 자유(spiritual freedom)이다.”라고 이 두 관계를 웅변해 준다(고명규, 1995).

특히 실존주의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만일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본질이 무엇에 의해 규정되어져 있다면, 인간은 그의 의지에 의해서 산다기 보다도 그 본질을 규정한 자의 자유의지에 의해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주체적 삶을 포기한 사람이며, 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포기한 자유로부터 도피(escape from freedom)한 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 행동주의나 정신분석에서 잘못된 하나의 가정(假定)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존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주위의 상황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무시한 범결정주의적(汎

決定主義的 : pan-deterministic)인 인간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찰한 것처럼 우리는 자유의 의미를 환경 내에서의 선택과 권리의 면으로 한정시킴으로써, 비로소 결정론과의 대립이나 불일치를 해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통제와 자유를 상호결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행동주의 심리학(결정론 : determinism)과 인본주의 심리학(자유의지 : free-will)를 조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사회학습이론이 갖는 교육적 의미가 매우 심장(深長)하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성장욕구중심의 인간관은 인간중심적 상담형태를 조형한다.

인간의 발달단계 중에서도 초기의 단계인 유아기(幼兒期)와 아동기는 동물적이고 생산적이기 때문에 행동주의적 상담이 유용하고, 이 동물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으로의 도약을 위한 청소년기와 동물적인 영역을 탈피하여 인간의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성인에게는 인간주의적 상담이 효과적이다(고명규, 1991).

이는 곧 발달의 어느 시기보다 비교적 결핍욕구중심(구하는 욕구)의 경향과 타인지시적 경향이 높은 유아기와 아동기와, 비교적 성장욕구(주는 욕구)중심의 경향과 자기지시적 경향이 강한 청년기와 성인기라는 발달단계들이 지닌 서로 질적으로 다른 발달적 특성이 전자(유아기·아동기)는 지시적 상담형태를, 후자(청년기·성인기)는 비지시적 상담형태를 주조(鑄造)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다섯째, 성장욕구중심의 인간관은 '나와 당신과의 관계'이다.

성장욕구중심의 인간관에서는 또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그리고 상관과 부하간의 대인관계의 유형은 '成長指向의인 協助關係'로 지칭할 수 있다(장상호, 1985). 이는 각자가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의 가능성을 신뢰하며, 서로 가식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만나며, 상대방의 처지와 심정에 공감하며, 서로의 새로운 발견에서 기쁨을 느끼는 협조관계이다. 곧 Buber(1958)가 말하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I-it relationship)가 아니라 나와 당신과의 관계(I-You relationship)이다.

'나-너 관계(I-thou relationship)'이란 인간과 자연을 대함에 있어 그들을 하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존재로 대하는 태도이다(김정규, 1995). 즉, 그들을 나와 대화 상대인 '너'로 대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을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즉 '사물'로 대하는 '나-그것' 관계와는 달리 목적으로 대한다.

이 때 상대방은 나와 대등한 위치에 있으며, 서로의 관계는 이용관계가 아니라 교류관계이다. 즉, 서로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대화하며, 서로 영향받아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이다. 나는 너를 통해 확인받고, 너는 나를 통해 존재를 실현하는 그런 관계이다.

이런 인간 대 인간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이 각자 자신의 가능성을 불안감 없이 자

유롭게 시험하고 표현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한편, 결핍욕구중심의 인간관에 따른 인간관계 유형은 '나-그것 관계'이다. '나-그것 관계(I-it relationship)'란 개체가 인간과 자연을 대함에 있어서 그들을 마치 고정적 형태를 지닌 물리적인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는 태도를 뜻한다(김정규, 1995). 예컨대, 한 인간을 대할 때 그를 감정을 느끼고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고서 삶을 살아가는 한 존재로 보는 대신, 그가 가진 재산이나 지위, 학력, 권력 혹은 노동력 등을 수치화해서 평가하고 분석하여 그러한 값을 가진 사물로 보는 태도이다. Buber는 이러한 태도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볼 때,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자연까지도 그 본연의 존재로부터 소외되어 마침내 그 존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 주변에서 한 인간을 사물로, 자기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혹은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다.

먼저,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지능이나 학업점수 또는 성격적 제특성을 분석적으로만 보려는 태도 또는 수치로 동일시하려는 경향은, 아마도 통합된 인격체로서의 인간이 아닌 非人間化(dehumanization)의 경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존재하는 듯 착각을 한다. 어떤 집의 가정부나 어떤 직장의 여공들은 인간이기 전에 주인이나 경영주의 도구에 불과하며, 매춘부나 접대부들은 인격이나 인간성이 인정되지 않는 손님의 이익이나 쾌락, 오락의 대상이 되어 돈에 팔려 슬퍼도 웃어야 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야 하는 인형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역사상에는 인간을 자기 목적달성에 방해되는 집단으로 보고, '敵'이라든가 '위협적 존재'로 생각하여,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말살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긴 경우가 많았다. 나치에 의한 집단살인이 그랬고, 공산주의자들의 반동이라는 이름의 무자비한 처형이 그렇고, 전쟁에서의 살육이 그렇게 하여 이루어졌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대량학살 무기가 상상 이상으로 개발된 사례들이 그것을 말한다.

그러한 사회적 가치체제가 팽배하면 할수록 인간에 의한 비인간화는 촉진될 뿐이다. 따라서, 비공식적인 접촉을 허용치 않는 비대하고 관료화된 학교나 조직, 학업성적이나 업적 및 성과를 통해서 인간을 통제하고, 또 그러한 것이 인간적인 가치서열을 매기는 척도가 되는 '나와 그것의 관계' 유형에서는, 짧은 시간에 심도있는 두 사람간의 만남이 하루종일 일어나는 무수한 사람들간의 물리적인 접촉보다 성장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인간주의적 관점을 포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여섯째, 성장욕구중심의 학습동기관은 내재학습이며 그 지도전략은 학습자의 구조에 초점을 둔다.

타인의존적·자기의존적 욕구충족의 경향은 역시 학습형태에 있어서도 외재학습과 내재학습으로 대비시킨다.

여기서 외래학습(外來學習 : extrinsic learning)이란 어떤 밖에 있는 사실이나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습형태이다. 학생들은 자극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반응을 해야 하고, 어떤 기존 지식·정보·기술 및 문화내용을 전수(傳受)해야 한다. 교사는 이런 지식과 기술을 주입시키기 위해 외부적인 보상과 같은 수단을 동원한다. 즉, 어떤 특정한 사회적 규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중심적인 생각이다.

내래학습(內來學習 : intrinsic learning)이란 성장이나 인간성의 원천은 사회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개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학습관이다. 따라서, 내래학습, 즉 자아실현의 학습은 외래적인 보상의 유무에 상관없이 진행된다. 자아실현으로부터 오는 심리적인 건강 및 만족 자체가 내래적 보상(內來的 報償 : intrinsic rewards)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상을 받고 학위를 수여받을 때에 한해서 학습이 되고, 그 보상이 중단될 때 학습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학습도 소멸되는 외래적 학습과는 크게 대조된다(장상호, 1985).

이와 관련하여 Bruner(1966)도 학습과정에 대한 결과의 지식, 즉 정보의 제공이 외부에서가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교정적 정보(corrective information)를 얻는 기술로 개발될 때 그것은 내적 보상의 작용을 하여 학습 그 자체에 대한 희열과 기쁨을 맛보게 되며, 이러한 강화(reinforcement)의 힘에 의하여 독자적인 탐구의 노력이 계속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 Maslow가 말하는 '동기' 혹은 '욕구'는 원래 자기 속에 존재하여 내외의 조건이 적절하면 자발적으로 행동을 일으키는 작용을 의미한다. 즉, '저절로, 자연적으로 그러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있음 동기(Being motivation : B-동기)가 성장동기의 하나의 특성이라는 점은, 행동주의에서 외부에서의 조작에 의해서 행동을 일으키는 작용으로 보는 조작주의와 수단-목적 관계로 보는 동기론에 정면으로 도전한다(上田吉一, 1994 ; 김계현, 1997).

학습에 대한 이러한 동기관(動機觀)의 차이에서 결핍욕구중심의 사람은 외래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에 의한 외래학습에 매력을 느끼지만, 성장욕구중심형의 사람은 내래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에 의한 내래학습을 보다 선호한다고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욕구중심형의 인간관에 따른 학습지도관은 학생들의 內發的 成長動機에 유관한 경험내용을 선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학생 스스로의 창조적인 에너지의 활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즉, 이는 개개인의 잠재능력의 범위와 유형 및 속도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교과목의 구조'보다는 '학습자의 구조'에 많은 배려를 하며, 학생을 학교환경에 맞추기보다는 그 환경을 학생에게 맞추는 전략을 택한다(장상호, 1985). 개별적인 흥미와 관심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융통성과 선택지를 갖고 있는 학습내용과 방법은,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 자체에서 충분한 보상과 만족, 그리고 발견의 흥분을 체험하게 한다. 이로써 학습자의 구조에 따른 학교환경의 구성에서는 공부(학습)와 유희의 엄격한 구분은 사라진다.

이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에 관계없는 환경, 즉 학습방법과 내용이 '평균학생'을 상대로 일률적으로 主入的으로 주어짐으로써 그들에게 무의미하며 원치 않는 것을 배우면서 스스로의 학습의 리듬과 성장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며, 또 그들에게 학습이 스스로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왜곡되는 타율적·外來的 動機誘發方法을 동원하는 결핍욕구중심의 학습지도관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참고 문헌

- 강봉규(1992), 교육심리학, 서울 : 형설출판사.
- 고명규(1991), Skinner와 Rogers의 상담이론분석을 통한 절충적 상담모형 탐색, 박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_____ (1995), Frankl의 의미요법에 관한 일 고찰, 학생생활연구. 제16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계현(1997), 상담심리학, 서울 : 학지사.
- 김남성(1984), 교육심리학,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은산(역)(1987), 서머힐, 서울 : 양서원.
- 김정규(1995), 계슈탈트 심리치료, 서울 : 학지사.
- 김정희 외 9명(1998), 심리학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노안영(1998), 상담이론의 개관,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박아청(1999), 교육심리학의 이해, 서울 : 교육과학사.
- 서봉연·이춘재(1970), 바람직한 성적 적응의 지도, 서울 : 중앙학생지도연구소.
- 우재현(1992), 심성개발을 위한 교류분석(TA) 프로그램, 대구 : 정암서원.
- 윤태립(1970), 한국인의 성격, 서울 : 현대교육총서출판사.
- 장상호(1985), 학습의 인간화, 서울 : 교육과학사.
- 정인석(1987), 현대심리학개론, 서울 : 교육출판사.
- _____ (1998), 트랜스퍼스널 심리학, 서울 : 대왕사.
- 한국응용심리학협회(편)(1972), 생활지도, 서울 : 공신문화사.
- 황응연 외 4명(1965), 심리학개론, 서울 : 재동문화사.
- Allport G. W.(1955), *Becoming : Basic considerations for a psychology of personality*, New Ha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62), "Psychological models for guidance", *Harvard Educational Review*, 32(4), 374-381.
- Bruner J. S.(1966), *Toward a theory of instru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44-48.
- Buber M.(1958), *I and thou*, New York : Scribner.
- Carroll H. A.(1969), *Mental hygiene—the dynamics of adjustment*, 4th. ed.,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Fromm E.(1941),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 Holt.

- _____ (1959), The Creative attitude, In H. H. Anderson(ed.), Creativity and Its Cultivation, New York : Harper & Brothers.
- Goldstein K.(1939), The organism, New York : American Book.
- Hall C. S.(1954), A primer of Freudian psychology, New York : New American Library.
- Hilgard E. R., Atkinson R. L. & Atkinson R. C.(1979), Introduction to psychology, 7th, ed.,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Hjelle L. A. & Ziegler D. J.(1981), Personality theories : Basic assumption, research and applications, 2nd. ed., New York : McGraw-Hill.
- Maslow A. H.(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Row.
- _____ (1959), Creativity in self-actualizing people, In H. H. Anderson(ed.), Creativity and Its Cultivation, New York : Harper & Brothers.
- _____ (1962),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 D. Van Nostrand.
- _____ (1967), A theory of meta-motivation : The biological rooting of the value-lif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967, 7, 93-127.
- Patterson C. H.(1973), Humanistic education,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Perls F. S.(1969), Gestalt therapy, Verbatim Moab, UT : Real People Press.
- Riesman D.(1950), The lonely crowd, New Ha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 Rogers C. R.(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 Houghton Mifflin.
- Whyte W. H. Jr.(1956), The organization man, New York : Simon and Schuster.
- 上田吉一(1993), 精神的に健康な人間. 日本 : 川島書店.
- _____ (1994), 自己實現の達成, 日本 : 大日本圖書.
- _____ (監譯)(1996), 健康な人格(D. Schultz, Growth psychology-models of the health personality, 1977), 日本 : 川島書店.
- 星野 命·河合準雄(編)(1984), 心理學 4(人格), 日本 : 有斐閣.

<Abstract>

**The study on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 healthy man's need**

Ko, Myoung-kyo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educational implication of children and student's desirable growth and development with analysis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about healthy man's growth need.

The educational implication is as below:

- 1) The function of education is to complete and keep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deficiency need and growth need.
- 2) Ideal model centered on growth need is self-realizer.
- 3) Freedom and responsibility is of importance in the view of man centered on growth need.
- 4) Person-centered counseling style is shaped by the view of man centered on growth need.
- 5) The view of man centered on growth need is the relationship between I and you, not I-It relationship.
- 6) The view of learning motive centered on growth need is intrinsic learning. It's guiding strategy focuses on learner's interest and intelligence.